

광주일보

Weekend

제17723호 2판
2007년 4월 7일 토요일



光州日報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501-711)

회장 許宰皓
시장 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대표전화 2200-500-222-8111
(구독신청·배달안내)
홈페이지 www.kwangju.co.kr

편집국내내
대표팩스 222-4918 총무부 2200-511
편집부 2200-629 〈팩스 222-8005〉
정치부 2200-616 광고국 2200-521
경제부 2200-617 〈팩스 227-9500〉
사회부 2200-618 디자인부 2200-536
〈팩스 222-4267〉 사업부 2200-552
사회부 2200-619 문화사업국 2200-541
〈팩스 227-0118〉 〈팩스 222-0195〉
문화생활부 2200-626 판권부 2200-551
여론매체부 2200-628 〈팩스 227-9500〉
체육팀 2200-627 서울지사
사진부 2200-690 02-773-9331
조사부 2200-570 〈팩스 02-773-9336〉
구독료 월 8,000원 1부 400원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오경을 준수합니다

“아버지·누나만 스탠가? 나도 이젠 스타라구요!”

인기리에 방영중인 MBC 월·화 드라마 ‘히트’는 고현정이 강력계 반장으로 출연해 화제가 되고 있는 작품. ‘히트’는 회당 출연료가 2천만원이 넘는 초특급 스타 고현정의 상대역을 신인배우 하정우가 맡아 다소 의외의 캐스팅이라는 말을 들었다.

영화 ‘용서받지 못한자’로 혜성처럼 등장한 하정우는 김기덕 감독의 ‘시간’과 ‘숨’에 연속적으로 출연하며 내공을 쌓은 신인배우. 전도연 주연의 드라마 ‘프라하의 연인’에 보디가드로 출연하기도 했던 그는 중견 밸런트 김용건의 아들이다.

최근 들어 부자(父子), 형제, 자매, 남매 등 연예인 가족들의 활약이 눈부시다.

드라마 시청률 선두를 다투고 있는 KBS 2TV ‘행복한 여자’에서 여주인공의 남편을 빼앗는 역할로 시청자들의 미움을 사고 있는 장미인애는 ‘초코파이’ 광고와 시트콤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등에 출연했던 장미

나의 언니로 데뷔 당시 화제를 모았었다.

가수 엄정화의 남동생인 엄태웅은 현재 수목드라마 ‘마왕’에 주인공으로 출연중이다. 드라마 ‘쾌걸 춘향’, 영화 ‘가족의 탄생’ 등을 통해 연기 경력을 쌓은 엄태웅은 지난해 방영된 드라마 ‘부활’을 통해 ‘엄포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부활 폰이’를 양산했다.

영화 배우 하지원의 남동생인 전태수는 연기자로서 첫발을 내디딘다. 전태수는 오는 23일 방영되는 SBS 새 아침극 ‘사랑하기 좋은날’(극본 허숙·연출 흥성창)에 캐스팅됐다. 약간의 왕자병을 가진, 밝고 씩씩한 배장호 역을 맡은 전태수는 그룹 쥬얼리 출신의 이지현과 알콩달콩한 신세대 사랑을 선보인다.

밸런트와 가수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안재욱의 동생인 안재현 역시 영화 ‘그놈 목소리’와 KBS 2TV 설 특집극 ‘심청의 귀환’에서 출연하며 연기자로 길을 들어섰다.

김태희·이완은 남매 연예인으로 유명하다.

드라마 ‘구미호 외전’ 영화 ‘종전’ 등에 출연한 김태희는 최고의 CF 스타로 각광받고 있으며 뛰어난 데뷔한 이완 역시 드라마 ‘천국의 나무’에 이어 최근에는 일본 영화 ‘베로나가 죽기로 결심하다’와 영화 ‘소년은 울지 않는다’를 활동중이다.

밸런트·양미라의 동생으로 연예계 데뷔전부터 ‘얼왕 동생’으로 이름을 날렸던 양은지는 그룹 ‘베이비 비스 리브’의 팀원으로 활동중이며 ‘까만 안경’으로 가요 시장을 장악한 이루는 잘 알려진 대로 가수 태진아의 아들이다.

하정우가 출연했던 ‘용서받지 못한자’에는 또 한명의 연예인 2세가 출연한다. 고문관 역을 맡았던 서정원이 주인공으로 그는 밸런트 서인석의 아들이다. 최근에는 민병훈 감독의 ‘포도나무를 베어라’에 주인공으로 출연했다.

연예인 가족 출신이라는 꼬리표는 새롭게 도전에 나서는 이들에게는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다. 초창기에 인지도를 높이는 데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가족의 ‘후광’ 때문에 자리를 잡았다는 비단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 ‘엄정화 동생’이라는 이름이 한동안 따라다녔지만 뛰어난 연기력으로 홀로서기에 성공한 엄태웅의 사례처럼 결국 ‘실력’으로 인정받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청춘스타 전혜빈 이젠 여인의 향기 풀~풀

현란한 춤솜씨 덕분에 ‘이사도라 빙’이 라 불리며 한때 각종 TV 버라이어티쇼를 종횡무진하던 청춘스타 전혜빈(24)에게서 여인의 향기가 나기 시작했다. 한결 차분해졌고 한걸 예뻐졌다.

그 분위기 그대로 SBS TV 수목드라마 ‘마녀유희’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2월 코믹액션영화에 여주인 공으로 캐스팅됐어요. 무직 기뻤죠. 그런데 출연을 앞두고 텁텁한 연습을 하다 바닥에 얼굴이 긁히는 상처를 입었어요. 설상가상으로 그 영화가 엊그제였죠. 정말 괴로웠습니다.”

여자 연예인으로서 얼굴 부상도 괴로운데 고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치료를 받으면서 성형외과 의사의 조언을 받아 아 코를 높여주는 수술을 받았는데 그로 인해 누리꾼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것.

“제가 눈과 입이 약간 돌출된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좀 센 이미지였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코를 좀 높여주면 그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하셨죠. 수술 사실을 숨길 생각은 없었는데 부기가 빠지기 전에 공식석상에 나타난 제 모습을 많은 분들이 별로 안 좋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한동안 심한 ‘악

풀’에 시달려야 했죠.”

여기엔 집안 문제도 겪쳤던 모양. “원래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닥친다고 정말 지난해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연기는 정말 하고 싶은데 기회는 안 오죠. 인터뷰에서는 안 좋은 소리만 나오죠..” 가만히 있다가는 우울증에 걸릴 것 같아 연기 연습, 노래 연습에 매진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아주 많이 달라진 모습으로 ‘해피선데이’의 ‘여걸식스’ 멤버로 활동하게 됐고 드디어 ‘마녀유희’의 오디션에도 합격해 레스토랑 매니저로 출연하고 있다.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매가박스	
구. 런던영화사거리 ♥ 예매 1544-0600	
1관 우아한세계-디지털 (15세)	최고급관
2관 이장과 군수 (12세)	
3관 우아한세계 (15세)	
4관 철없는 그녀의 아찔한 연애코치 (15세)	
5관 300 (18세)	
6관 네버23 (15세)/이장과 군수 (12세)	
7관 마히2.6: 플스피드 (15세)	
8관 뷰티풀 선데이 (18세)	
9관 향수-어느 살인자의 이야기 (15세)	

Megatizen Day 매주 월~금 영화 4,000원 관람
*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고객에 한함) 3시간간 초과시 경상요금 부과
★ 무료팝콘 뷔페-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무료★



— 주차장이 편한 극장 —

엔터 시네마	
총장로 5가 ☎ 228-2700	
1관 이장과 군수 (12세)	
2관 브레이크업 이별후에 (15세)	
3관 우아한세계 (15세)	
4관 행복을 찾아서 (전체)/쏜다 (15세)	
5관 수 (18세)	
6관 뷰티풀 선데이 (18세)	
7관 300 (18세)	

금토(2일간) 심야상영
* 주주식 동시 주차장 200대 <3시간 무료>

* 매주 화요일 영화 보는날 2,000원 할인(공휴일제외)

* 매주 금~금요일 2,000원 할인

* 매주 목요일 Teen Age Day 중, 고생 1,500원 할인(공휴일제외)

한토시티 영화시네마 * 예매: www.joycbc.com / 1588-7941

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
상무점(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하늘점(무역회관앞)

1관 300 (18세)	
2관 뷰티풀 선데이 (18세)	
3관 이장과 군수 (12세)	
4관 이장과 군수 (12세)	
5관 네버23 (15세)	
6관 향수-어느 살인자의 이야기 (15세)	
7관 우아한세계 (15세)	
8관 블랙북 (18세)	
9관 철없는 그녀의 아찔한 연애코치 (15세)	
10관 우아한세계 (15세)	

* 희망 최대 주차장 * 매일실마 상영합니다

1588-7941

콜롬버스 해설점 (18세)

점천리 상영장

상영장연결 방법
→(1번 or 2번) → 0번

엔터테인먼트
크리미아카드

10 BOX OFFICE

영화

(단위: 명)

순위	제목	서울관객	전국누계
1	300	11만 6천100	243만 1천300
2	이장과 군수	11만 6천	53만
3	-어느 살인자의 이야기	7만 1천400	66만 4천300
4	네버23	3만 8천700	37만 3천 600
5	뷰티풀 선데이	2만 9천 800	10만 5천700
6	블랙북	2만 6천400	8만 1천300
7	브레이크업: 이별후에(愛)	2만 4천200	20만2천
8	여자 직사 그 남자 작곡	1만 8천500	107만 2천300
9	길고 짧은 여행	6천 800	8만4천
10	수	6천300	20만 6천

(자료제공: 필름 2.0)

TV

(단위: %)

순위	제 목	방송국/시청률
1	하늘만큼 땅만큼	KBS1 29.3
2	행복한 여자	KBS1 28.4
3	대조영	KBS1 27.7
4	나쁜여자 촉한여자	MBC 22.9
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SBS 21.2
6	개그콘서트	KBS2 20.7
7	거짓 없이 하이킥	MBC 18.8
8	거짓 없이 하이킥 스페셜	MBC 18.2
9	히트	MBC 18.1
10	무한도전	MBC 17.8